

##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생신날에도

온 나라 인민들이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며 즐거운 휴식을 하고있던 1994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으로 분망하신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나 한가지라도 더 색다른것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시였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만나시느라고 분과 초를 쪼개가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그러다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신날에도 사업부담으로 과로하시였다.

다음날에도 또다시 헌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한 일군이 잠시라도 휴식하시었으면 하는 의향을 간절히 아뢰였다.

일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는 인민들의 생활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말씀올리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그런데 자신의 건강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너무 무리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수령님의 건강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모른다고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극한 충정에 대하여 생각하시는듯 창가너머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김정일**동지가 나의 건강때문에 마음을 쓴다는것은 자신께서도 잘 알고있다고, **김정일**동지도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어 밤낮없이 일하고있는데 자신께서도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북받치는 걱정으로 하여 어깨를 들먹이는 일군을 진정시켜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의 심정을 알만하다고, 그러나 이민위천은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자신께서는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한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려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